Malaysia's Maritime Industries Report (July 2023)

아래 내용은 조합원의 참고를 위한 국문 요약본이며,

정확한 내용은 영문 보고서 확인 부탁드립니다.

1. 주요 해양산업 기사

1) 경제

A) 말레이시아 교통부, 말레이시아 해운 & 조선부문 "친환경화" 진행 중

- 말레이시아 해양조선산업, 지속가능한 해상연료 도입 통해 친환경화 진행 중
- 말레이시아 해운청, 1996년 7월 이전에 인도된 선박(Single Hull Double Bottom Ship)에 적용되는 신규 운항 조건 (MSN : Malaysia Shipping Notice) 6월 1일자로 발효
- 신규 운항 조건은 말레이시아 해역을 운항하는 5천 DWT 이하급 유조선에 적용되며, 해당 선박은 중질유(HGO) 운반할 수 없으며 말레이시아 해운청이 지정한 선급 기준 (Notation)에 부합해야 함
- 1996년 7월 이후 인도된 600DWT 이상급 말레이시아 선적의 유조선은 19, MARPOL ANNEX I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

B) 말레이시아, 국제 해운에서 탄소집약도 절감 검토

- 말레이시아, 국제 해운 업계가 추진 중인 (현재 대비) 2030년까지 탄소집약도 40%, 2050년까지 70%까지 절감하는 방안 적극 지원 예정
- 교통부 장관, "국제 해운 업계의 탄소집약도 절감 목표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을 달성하려는 말레이시아의 의지와도 일치함"
- 말레이시아는 자율운항선박(MASS) 기술 관련 코드 부여 및 기술 발전을 주도 중인 국제해사기구(IMO)의 역할에 대한 지지 의견 피력

C) 국가해운항만의회(NSPC), 지역해운산업의 경쟁력유지 위한 논의 진행

- 말레이시아 교통부 장관, "7월 진행된 NSPC (National Shipping and Port Council) 회의에서 해운산업의 방향성, 최근 이슈 및 해운 산업의 친환경 시스템 및 자금 조달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 시행"
- 말레이시아 해운 및 물류 산업의 친환경 시스템 도입 관련, 21년 정부 예산에 37억 RM이 배정된 바 있음

2) 투자 및 파트너십

A) MISC 그룹, 차세대 인재 및 암모니아 엔진 개발 위해 글로벌 해운 리더와 협력

- MISC, 암모니아 이중연료 선박용 엔진 개발 및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해 WinGD 및 DNV와 협력 협약 체결
- 동 협약은 암모니아 엔진이 적용된 선박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선원의 양성 및 교육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
- MISC 그룹,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탈탄소 운송으로의 전환을 위해 지속 노력 예정

B) Petronas, TotalEnergies, Mitsui, 아시아 태평양 최초의 산업용 CCS 허브에서 협력

- 페트로나스, 토탈에너지스, 미쓰이 3社는 말레이시아 최초의 탄소포집 및 저장(CCS) 관련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
- Petronas는 말레이시아를 아시아-태평양 지역 내 CCS 허브로 발전시키고 그룹의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며, Total 및 Mitsui와의 협약 체결은 상기 노력의 일환임

C) 말레이시아 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 로드맵

- 말레이시아 재정부, 국가 에너지 전환 로드맵(NETR : National Energy Transition Roadmap) 발표
- NETR 추진 1단계로 2050년까지 RM 4,350억에서 RM 1조8,500억 사이의 투자 기회 창출 예정

- NETR Part1, 6가지 에너지 전환 레버 (에너지 효율성, 재생에너지, 수소, 바이오 에너지, 그린모빌리티, 탄소포집, 활용 및 저장(CCUS))를 기반으로 하는 10개의 주요 촉매 프로젝트로 구성
- NETR Part2, 저탄소 경로, 국가 주요 에너지 구성 및 탄소배출량 감소 등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목표 설정에 중점

3) 프로젝트

3-1) 해양 지원 선박(OSV)

OSV 부분, 크고 단편화된

- 석유&가스 산업(O&G)의 호황기는 OSV 운영 선사들에게 기업인수합병 (M&A)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, 이를 통해 자본집약도 증진 및 운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
- 44명의 회원사(보유 선박 266척)로 구성된 말레이시아 OSV 선주 협회(Mosva), Petronas와 용선비 상승 관련 재협상 진행 중
- Mosva는 Petronas와 앵커 핸들링 예인선과 같은 선종의 운영/교체 주기를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 완료

3-2) 해군 군함 및 고속정(FIC/FCB)

A) LIMA 2023에서 말레이시아 LMS Batch 2의 입찰 경쟁자 드러나

- LMS Batch 2 (Littoral Mission Ships) 프로젝트 관련, HHI(한국), STM, Dearsan, Tais (터키), Edge(UAE), Fassmer(독일), Damen(네덜란드) 및 Fincantieri(이태리), 총 8개 조선소 LIMA 2023 전시회에서 말레이시아 해군에 제출한 자체 설계 공개

B) 말레이시아 전 해군 참모 총장, "부패 막고 국가 방어 강화해야"

- 전 해군 참모 총장, "지난 30년 동안 말레이시아 방위산업 관련 과오 되풀이 막아야"
- "말레이시아 해군 관련 다수의 사업들이 부적합하게 진행되었고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 또한 부재. 관련 기관들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"